

독일 통일후 사회통합에 일조한 '암펠만 신호등'.

디자인, 삶을 바꾸다

“더 적게 그러나 더 낫게(Less, But Better).”(독일 디자이너 디터 램스) 주먹도끼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디자인의 역사는 수십 만년 인류역사와 함께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디자이너는 펜으로 일상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광주비엔날레 전시관과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제10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11월 7일)를 계기로 삶을 바꾸는 디자인의 세계를 살펴본다.



아이팟, 아이폰 등 새로운 IT기기를 창출한 스티브 잡스.

◇애플, 단순하고 직관적인 혁신 IT기기 선보여=“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디자인은 ‘겉모습’을 뜻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엔, 그건 디자인의 의미와 정반대입니다. 디자인은 인간이 만든 창작물의 근간을 이루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결국 여러 겹의 표면들을 통해 스스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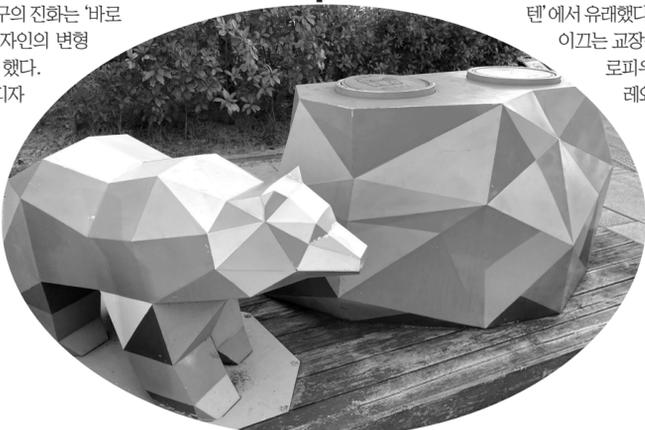
‘21세기 혁신의 아이콘’으로 평가받는 스티브 잡스(1955-2011)에게 디자인이란 무엇이었을까? 전기작가인 윌터 아이작슨이 쓴 평전 ‘스티브 잡스’ (민음사)를 읽어다 보면 그의 확고한 디자인 철학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7년 자신이 창업한 애플사에 복귀한 잡스는 아이팟(2001년)-아이폰(2007년)-아이패드(2010년)를 잇따라 출시하며 IT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대중들은 단순하고 직관적인 독특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능을 탑재한 IT기기에 열광했다.

“다른 것을 생각하라”(Think Different)는 광고 카피로 애플사의 정체성을 알렸던 잡스는 타사의 디자인을 따라가지 않았다. “단순함이란 궁극의 정교함이다”라는 문구가 잡스가 지향하는 디자인 철학의 핵심이었다. 그 결과 아이팟에 트랙 휠을 도입했으며, 아이폰과 아이패드 또한 배터리 리를 내장해 얇게 만들었다. 타 제품과 달리 버튼이나 스타 일러스(펜)를 없애고 손가락 터치만으로 작동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단순성을 추구하면서 제품의 본질만을 담고자 한 애플의 독특한 디자인은 수석 디자이너이자 부사장인 조너선 아이브에 의해 탄생했다. 그는 독일 전자기업 회사 브라운의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더 적게 그러나 더 낫게’(Less, But Better)라는 디자인 원칙을 설파한 디터 램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디터 램스의 디자인 뿌리 또한 독일 바이마르 예술종합학교인 ‘바우하우스’(Bauhaus)에 닿아있다. 애플의 디자인 시원(始源)은 ‘바우하우스’인 셈이다.

우리는 디자인과 더불어, 또는 디자인 속에서 살고 있다. 의식주 모든 영역과 디자인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일상 속으로 들어온 디자인 미학은 개인의 생활 향상뿐만 아니라 도시와 사회공동체의 이상 실천을 돕는다. 또한 올해로 10회를 맞은 ‘광주 디자인비엔날레’는 글로벌 디자인 흐름의 현주소를 보여주면서 미래 디자인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대 디자이너들에게 이어지는 ‘바우하우스’ DNA= 디자인의 역사는 인류의 출현과 함께 시작됐다. 먼 조상들은 강을 건너기 위해 징검다리를 놓았고, 차츰 통나무 다리와 돌다리로 변화했다. 도구도 주먹도끼에서 손잡이를 묶은 돌도끼로, 쇠망치로 발전했다. 도구는 신체의 연장선에 있었다. 도구의 진화는 바로 디자인의 진화, 디자인의 변형과 맞닿아 있다고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디자인



광주시 동구 동명동에서 볼 수 있는 북극곰 쓰레기통.



디자인을 만나다(MEET DESIGN)'을 주제로 오는 11월 7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주먹도끼에서 스마트폰까지 디자인은 인간 창작물의 영혼 동독의 신호등·굴리는 물통 등 일상과 공동체 바꾸는 힘 있어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계기로 사람·사회 향한 디자인 고민을

인전문경력관으로 활동하는 디자이너 박현택은 ‘오래된 디자인’(안그래픽스)에서 구석기 시대 주먹도끼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쓰임새에 가장 맞춤형 모양을 이루어낸 완결된 디자인”이라며 ‘오래된 모던’으로 새롭게 해석한다.

“기능이 정작하게 실현된 돌맹이에서 고전주의적 아름다움마저 느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나는 이 오래된 돌맹이를 기능적 정합성에 충실한 모던의 원형인 ‘오래된 모던’(Old Modern)이라고 부르고 싶다.”

1919년 독일 바이마르에 예술 종합학교 ‘바우 하우스’(Bauhaus)가 설립됐다. 프로이센 제국이 무너지고 바이마르 공화국이 출범한 의미깊은 해이다. ‘바우하우스’ 명칭은 중세 시대 석공과 건축가들의 길드인 ‘바우히텐’에서 유래했다. ‘바우하우스’를 이끄는 교장은 건축가 발터 그로피우스였다. 파울 클레와 바실리 칸딘스



아프리카 주민들의 식수 운반을 돕기 위해 디자인된 ‘Q-드럼’.

키 등 아방가르드 예술가들을 초빙해 당시로서는 진보적이고 파격적인 교육시스템을 확립했다.

디자인사 연구자인 페니 스펙트는 ‘디자인의 역사’(예경)에서 “바우하우스의 디자이너들은 역사적인 양식이나 기계화된 생산으로부터 자유로운 추상적인 형태를 사용함으로써, 보편적인 매력을 가진, 규격화되고 기능적인 물건을 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밝힌다. 이들은 ‘재료에 충실하라’는 개념(물건의 형태는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재료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개념)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법칙(물건 및 건물의 구조나 형태는 그 구조의 필요조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법칙)을 결합시켰다. 이러한 디자인 철학에서 나온 ‘유용성’과 ‘단순성’은 브라운(디터 램스)과 애플(조너선 아이브) 등 오늘날의 많은 디자이너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다.



ACC 인근에 설치된 ‘LED 버스 정거장’.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잠
- 2관 오픈하이머
- 3관 타겟
- 4관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
- 5관 달짝지근해: 7510
- 6관 잠
- 9관 নিজ터틀: 유턴트 대소동, 콘크리트 유토피아
- 7관 싸네커피를 치약산, 타겟
- 8관 싸네커피를 콘크리트 유토피아, 일주일간 친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3년 광주상설공연
일시 : 2023-09-01(금) ~ 30(토) 17:00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2023 광연예술축제 그라제 소리극 콜비츠와의 대화
일시 : 2023-10-17(화) ~ 18(수)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문의 : 062-613-8235

